

# ‘포화상태’ 커피전문점 창업 열풍 속 ‘지역별 온도차’

2월 광주 2천730곳 증가세 둔화  
전남 4천곳 육박 전 시·군 성장세  
과잉 경쟁 우려 생존 전략 관건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커피전문점 창업’ 열풍이 지역별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증가세가 둔화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반면, 전남은 매년 점포 수가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광주 지역 커피전문점은 2천73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2월 2천42곳과 비교하면 5년 사이 688곳이 증가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192곳(459곳→651곳)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 뒤를 서구 178곳(371곳→549곳), 북구 137곳(623곳→760곳), 동구 115곳(327곳→442곳), 남구 66곳(262곳→328곳) 등 순으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며 ‘카페 확산’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

고 있다. 2024년 2월 2천739곳에서 2025년 2월 2천746곳으로 소폭 증가한 뒤, 올해 2월에는 2천730곳으로 오히려 줄어들며 감소 전환했다. 이는 창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폐업도 동시에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 지역은 포화 우려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의 커피전문점은 2021년 2월 2천744곳에서 올해 2월 3천957곳으로 5년 사이 1천213곳이 늘었다. 특히 최근 흐름을 보면 2024년 2월 3천857곳에

서 2025년 2월 3천931곳, 올해 2월 3천957곳으로 매년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내 시·군별로는 전반적인 확장 흐름이 확인된다. 여수는 146곳(470곳→616곳)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순천은 151곳(607곳→758곳), 목포는 118곳(316곳→434곳) 증가했다. 또 나주 107곳(171곳→278곳), 담양 82곳(131곳→213곳), 화순 63곳(106곳→169곳), 해남 34곳(102곳→136곳) 증가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커피전문점 수가 꾸준히 확대됐다.

이처럼 같은 지역권 내에서도 광주와 전남의 흐름이 엇갈리는 것은 상권 구조와 소비 패턴 차이, 관광 수요 유입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카페 창업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당분간 증가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과잉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시장 재편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민 커피 대표는 “매장 수 증가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프랜차이즈별 운영 전략과 차별화 여부가 시장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연태호 기자

# 전남 서남부 제조업 경기심리 ‘회복세’

4월 기업심리지수 전월비 4.0p ↑  
비제조업은 제한적 개선

전남 서남부 제조업 경기심리가 회복세를 나타냈다. 29일 한국은행 목포본부 발표된 ‘2026년 4월 전남 서남부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 비제조업은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목포시와 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 등 9개 시·군 소재 기업 250 곳이며, 이중 218개 업체가 응답했다. 기업심리지수(CBSI)는 주요 기업경기실사

지수(BSI)를 종합한 지표로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경기 인식을 판단한다. 4월 제조업 CBSI는 105.5로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를 웃돌았고, 5월 전망도 106.8로 올라 기업들의 경기 기대감이 강화됐다. 이는 전국 제조업 CBSI(99.1)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황 BSI는 71로 8포인트 상승했으며, 매출(76)과 신규수주(80)도 각각 개선됐다. 다만 생산과 가동률, 설비투자는 일부 조정을 보였고, 자금사정은 악화돼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기업들은 경영 애로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3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자금 부족, 내수 부진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약했다. 4월 CBSI는 92.7로 소폭 하락하며 기준치에 못 미쳤지만, 다음 달 전망은 94.1로 다소 개선됐다. 업황은 소폭 상승했으나 매출과 채산성, 자금사정은 모두 악화됐다. 주요 애로 요인은 내수 부진(26.7%)으로 나타났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역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유통 등 비제조업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임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업황·매출·생산·자금사정 등 기업 활동 전반과 경영상 애로사항을 포함해 4월 실적과 5월 전망을 함께 조사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푸르른 오월, ‘오이 데이’로 시작해요 29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오월’ 오이데이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전KDN, ‘취약계층 청년 자립 지원’ 나선다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29일 “전남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와 ‘취약계층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 준비 청년, 이주 배경 가정, 기초 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 준비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성우 한전KDN ESG경영처장과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취약계층 청년을 위

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아동복지기관 멘토링 참여 지원 ▲멘토 장학금 지급 ▲한전KDN 체험형 인턴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동복지기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멘토 장학금을 수혜하게 함으로써 ‘나

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으며 한전KDN에서의 체험형 인턴 근무 기회는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전KDN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ESG 경영 실천을 가속화 할 계획이며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하는 에너지ICT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기업 성장 적극 지원”

이창호 제38대 광주지방조달청장 취임  
광주지방조달청은 29일 “이창호(사진) 제38대 광주지방조달청장이 30일 취임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청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 청장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행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인공지능(AI), 미래차,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시설사업기획과장, 건설기술계약과장, 광주청 자체구매과장 등을 거친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연태호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진짜 맛과 멋이 있는 진도조금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 12, 17, 22, 27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Jindo 진도군** 광고문의 : 062)650-2099